

# 화룡시 근교의 충천계곡 자연동굴 탐사기

소 대 화\* · Chun-Zi Xu\*\*

## Proving Report on Natural Cave of Choongcheon Valley in Suburbs of Hwaryong City

Soh, Dea-Wha\* · Chun-Zi Xu\*\*

**요약:** 우리는 한국동굴학회의 요청과 사업계획에 따라, 동북-중양아시아지역 동굴과학정보망 구축 사업에 동의하고 이를 지원하는 뜻으로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화룡시 근교의 충천계곡(골)자연동굴을 탐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1년 전 어느 날 화룡시 충천 골에 있는 동굴을 찾아 연길에서 차를 타고 장인촌으로 간 적이 있었다. 그곳에 가서 수소문하여 동굴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는 김창현 노인을 찾았다. 당시 우리가 그 노인을 찾았을 때는 이미 점심때가 다 되었다. 우리가 동굴을 찾아가 보려고 김창현 노인을 찾아왔다고 하자, 그 노인은 동굴이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침 일찍 떠나야 하기에 오늘은 갈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김 노인으로부터 동굴에 대한 이야기만 좀 듣고 돌아와서 후에 약속한 날에 다시 탐사방문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바로 이때부터 우리는 국제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 국제동굴과학정보망 구축 사업에 동참을 시작한 셈이 되었으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

### 1. 충천계곡

한동안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정확히 2006년 10월 2일 우리 일행 3명은 전날 김창현 노인과 전화로 약속을 하였고, 아침식사를 일찍 챙겨 먹은 뒤 오전 7시 15분에 승용차로 동굴을 찾아 연길에서 떠나 장인촌으로 향하였다. 오전 9시 우리는 계획대로 장인촌에 계시는 김창현 노인의 집에 도착했다. 김 노인은 약속대로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 노인은 우리가 도착하자 반갑게 맞이해주시면서 얼른 일어나 옷을 걸치고 우리와 함께 탐사 길에 오르려 하자 차에 몸을 실었다. 충천 골에 있는 이 자연동굴은 장인촌에서 약 10km 쯤 떨어져 있는 맹산 골에서 산발을 타고 다시 약 10km 정도 가야 했다. 그런데 산길이 포장도로가 아니어서 차를 어느 정도 밖에 이용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가

는 도중 차를 길옆에 세워놓고 김창현 노인을 따라 산행장정을 시작하였다. 내가 동굴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가(?)하고 김 노인한테 물었더니 김 노인은 산발을 타고 가까운 길을 이용한다고 해도 빨라야 1시간 30분은 더 걸릴 것이라고 하였다. 저는 원래 건강이 좋지 않아 휴식치료중이라 일행들은 나를 아예 떠나지 말고 차에서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 하였다. 저 자신도 신심이 피로하여 그분들을 따라 갈수도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래서 중도에서 그분들에게 탐방을 잘 부탁드리고 떠나지 않았다. 김 노인이 집을 나설 때 도끼를 쥐고 나서니 내가 김 노인한테 도끼를 해서 뭐하는가 물으니,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때는 혹시 길에서 짐승이나 나쁜 일이 생길까 준비한 방어 장비라고 하였다. 일행 3명 중 김 노인은 도끼주머니를 메고, 다른 한사람은 물통을 준비해 들었고, 또 다

\* 본학회 회장, 명지대학교 교수

\*\* Science Reporter/Jilin, China

른 한분은 점심식사(빵, 소시지, 등) 주머니를 들고 나와 갈라져 목적지를 향해 떠나갔다. 나는 심산 속에 혼자 남아 떨어져 묵묵히 그들이 성공적으로 다녀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렸다. 홀로 심산 속에 있으니 무섭기도 하고 적적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한국동굴학회 회장 소대화 교수님의 현지 동굴정보에 대한 요청을 완성하기 위하여 점심식사도 굶어가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거의 6시간 만에 그들은 끝내 기진맥진한 상태로 돌아왔다.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니 나는 한없이 기뻐다. 물론, 김 노인과 함께 떠났기에 길을 잃을 염려는 없었지만, 혹시라도 의외의 일이 일어날 가봐 근심걱정 속에서 홀로 6시간을 기다리며 지냈다. 그 때의 6시간은 1년 같이 길어보였다. 순리롭게 돌아오신 그분들도 내가 안전하게 그들을 만나게 되니 매우 기뻐하였다. 3명중 1명은 저의 남편이었으니, 홀로 심산 속에 두고 간 저 때문에 걱정을 무척하신 것 같다. 그들은 나를 보자 자기들이 힘들어서 좀 쉬고 오겠다는 것도 나 때문에 쉬지 못하고 돌아오셨다고 하셨다. 그들과 만나자 우리는 인차 차에 앉아 산에서 내려왔다. 왜냐하면 해가 저물기 전에 또 고려장 굴을 가보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차에 앉아 오면서 저는 김 노인한테서 동굴에 대해 상세히 알려고 물었다. 김 노인의 말에 의하면 이 동굴은 자연동굴로서 김일성항일유격대원들이 전쟁 때 이 동굴을 이용해왔다고 한다. 김 노인은 13살 때 즉, 1946년에 북한으로부터 중국 땅을 밟아서 뿌리를 내리고 산 곳이 장인골이라고 하였다.

## 2. 동굴을 찾아서

김 노인은 이 충천계곡동굴을 수차례 다녀왔

기 때문에, 이 동굴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 이 동굴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김 노인의 안내를 받아서 다녀왔다고 한다. 국내에서 지질탐사 원들도 좋고, 군부대 그리고 동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갈 때면 거의 김 노인이 안내를 해드렸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이 동굴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 중국 연변대학 학자 그리고 외국학자들도 다녀왔다고 한다. 약 13년 전에는 북경대학에서 공부 중이었던 전 한국대통령 김대중님의 조카도 조선역사를 조사하려고 연변의 각지를 돌아다니던 중, 이 동굴에 다녀왔다고 한다. 그 당시 김대중님의 조카의 나이는 35세 좌우였다고 한다. 김대중님의 조카가 이곳에 왔을 때 중절모에 두루마기를 입고 말없이 걸어 다니는 모습을 지냈었다는 데, 그 때문에 처음에는 그 마을에서 정신병환자가 아닌가하고 의심을 받았다고 한다. 나중에 동굴에 대해 알려고 찾아다니다 김 노인을 찾아왔기에 김 노인의 아들이 배동 했었는데, 떠나갈 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떠났다고 한다.

현지인들은 이 자연동굴은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생긴 동굴로 알고 있는데, 김 노인은 이 동굴 내부를 따라서 약 120m 되는 지점까지 들어가 보았다고 하며, 그래서 동굴의 첫 어구 지는 별로 크지 않다고 하였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첫 어구지에서 얼마 들어가지 않아서 동굴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뻗어졌는데, 나중에 가면 다시 한줄기로 만난다고 한다.

동굴을 따라서 얼마쯤 들어가면 흐르는 물이 있었는데, 물이 흐르는 하지만 눈으로 보아서 흐른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었다고 하였다. 제일 깊은 곳의 물 깊이는 1.7m, 넓이는 14m 이었는데, 그것을 탐측하기 위하여 나무배를 만들어 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탐측했다고 한다. 그런

데 그 호수처럼 생긴 고여 있던 물이 1976년 중국 당산의 지진발생과 함께 물이 다 사라지고 없어서 지금은 그 당시 배를 띄우느라고 꼽아놓았던 나무만 남아있고, 깊이가 1.7m이었던 그 자리도 땅바닥이 돋아져 올라와 있고 땅이 축축이 젖어있다고 하였다. 동굴 안은 높이와 넓이가 같지 않으며, 넓은 곳은 운동장처럼 배구공을 칠 수 있을 정도로 넓고 좁은 곳은 또 아주 좁다고 한다.



<중국 연변 화룡시 근교의 충천골자연동굴의 입구의 외부와 내부 모습>

내부를 약 120m 이상 밖을 들어가면, 들어가는 어구지가 비좁아서 사람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당시 군부대원들이 함께 들어갔었는데 만일 들어갔다 그 후시라도 굴 아귀가 무너져 닳기만 공사가 크게 벌어져야 하므로 들어가지 말라

고 해서 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군부대원들이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동굴을 따라 들어가면서 부대원들과 함께 전화선까지 늘어 설치하면서 들어갔다고 한다.

이번에는 우리들이 동굴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 가다보니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임하게 되었었다. 즉, 전등불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초를 사가지고 가다보니 촛불로서는 도저히 똑똑히 볼 수 없어서 약 30~40m 들어가다가 되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다. 다음에 가게 되면 전등불을 필히 준비해 가지고 가야겠다고 생각한다. 안에 들어가니 밖의 온도보다 훨씬 냉랭하였다. 그러나 동굴 안에도 공기가 유통이 잘 되고 있어서 공기가 희박하지 않았다. 김노인의 말에 의하면 동굴 안에 공기 유통이 잘 되고 있다고 한다. 전에 군부대원과 함께 탐사를 들어갔을 때 배를 타고 탐사를 끝내고 나오다가 물에 빠져서 옷이 다 젖었을 때에도 불을 피우고 옷을 말리었는데, 그 안에 연기가 차지 않고 가뭇없이 사라지기에 부대원들이 이곳에 공기가 희박하지 않기에 사람이 지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했다고 한다. 김 노인의 말씀에 의하면, 이 동굴은 김일성유격대원들이 전쟁 때 이 동굴을 이용했던 사실이 있다고 한다. 그때 김일성유격대 본부가 와룡 도끼 봉에 있었는데, 이 동굴은 김일성 본부와도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며, 또한, 이 동굴은 김일성유격대원들이 항일전쟁 때 적을 크게 섬멸한 전쟁계곡(골)과도 가까운 위치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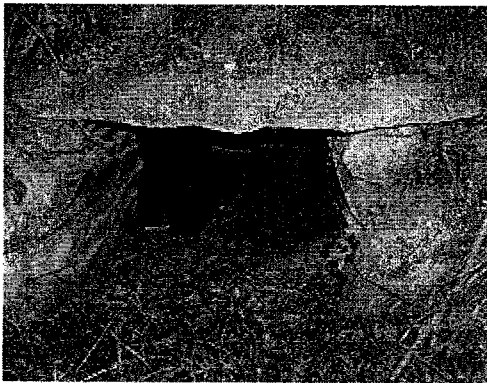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이 동굴을 연구하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 있다고 하는데 지질탐사대, 군부대, 그리고 학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번에 우리가 들어가 보니 최근에도 지질탐사대원들이 들어갔다 온 흔적이 남아있었는데, 동굴 안에 붉은 깃대가 꼽혀있고 일부 장비들도 남아 놓여있

었다. 동굴안의 일부 전경을 사진에 담아보았는 바, 사진을 보시면 더욱 실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동굴과 약 20km 정도 떨어진 장인촌 마을 둔덕에 우리 고려인들의 역사가 남겨 놓은 고려장 굴이 남아있다. 우리는 그날 오후 4시 30 분경에 김 노인을 모시고 고려장 굴 터에도 가서 확인을 하였다. 고려장은 우리 민족이 그 옛날에 나이가 들어 임종이 가까워지면 자식들이 쪽지계에 저다가 식량과 함께 그 곳에 모셨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고려장 굴 터들은 큰 바위 돌을 쌓아 만들어져 있으며, 그 현장을 사진으로 담아 와서 모습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건고하게 완벽한 모습으로 보존되어있는 석실 벽 내부>



<고려장 굴 터 입구 모습>



<왕릉의 내실모습을 닮은 천정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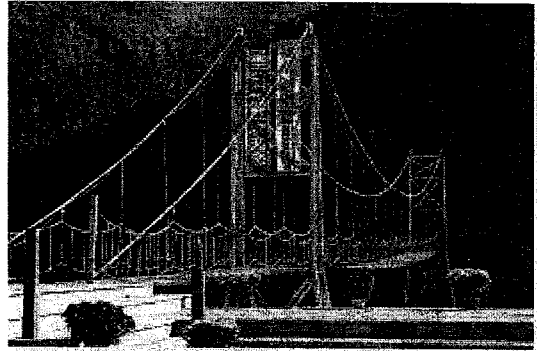
### 3. 국제학술교류협력

한국동굴학회는 국제교류활동이 활발히 추진 되어 왔으며, 특히 우리 중국의 동북3성 즉,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지역에 많은 관심을 교환해오고 있다. 임원을 포함한 일부 동굴학회 회원들은 필자와도 두터운 교분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에도 중국 요녕성과의 학술교류 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유익한 내용들이 교류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사회가 시장개방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지위가 향상된 사실을 보더라도 분명히 국제교류협력 관계는 중요한 일이며, 교류협력을 유지하는 상대방간의 상호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필

수적인 활동과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의 교류협력 사실에 대하여 학술교류협력 관계는 더욱 중요한 분야이며, 사회적 발전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이룩하고 개척하는 선도적 힘과 역할을 주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며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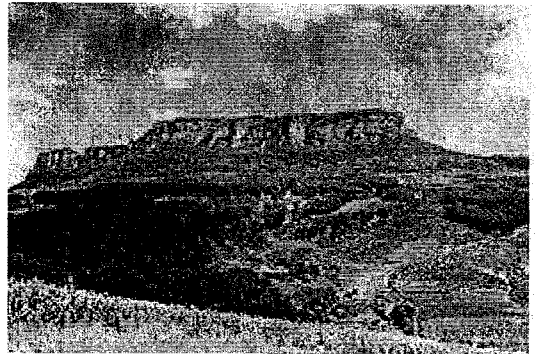
[한·중 교류협력의 이모저모]



<望天洞방문을 열렬 환영하는 한·중어 현수막>



<중국 요녕성 본계시 本溪水洞 답사 일행들>



<우뚝 솟은 오녀산성 위용/고구려건국초기도읍지>



<중국 요녕성 본계시 望天洞 답사 현장>



<구들방/민족한인의 생활터전 온돌방 발굴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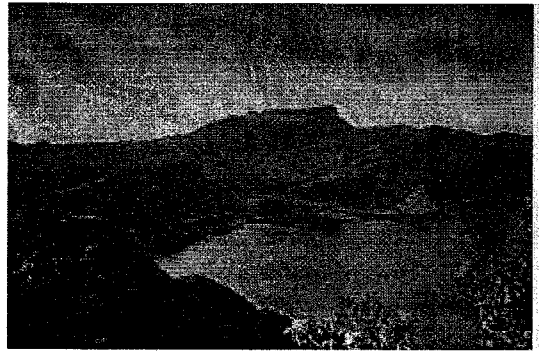
<환인현 소재 석회동굴 望天洞의 내부절리>



<수동굴 인접지역에 있는 천용동을 탐방하면서>



<북조선과총 산하기관 과학자들과 공동학술회의>



「桓龍湖 건너편에서 바라 본 중국요녕성본계시환인현 소재의 동북지방 한민족 대표적 고구려유적지 五女山城의 우뚝 솟은 전경」



<행사 후 조선과총 서기장 및 과학자들과 함께>

“계림산수(桂林山水)요, 황산송암(黄山松岩)이라.” 할 만큼 “강산(江山)의 아름다움이 계림에서 명성을 잇고, 송암(松岩)의 장엄함은 황산의 그것을 따를 것이 없다는데, 어디(?) 만주 환인현에 있는 五女山城의 신비로움과 진귀함은 그 무엇에 비해 볼 수 있을 쵸??”[1], ----



<이른 새벽/항상 평화롭게 기공 활동하는 주민들>

“한·중 국제심포지엄 보고서 그리고 중국 현지 고적답사 및 동굴탐사 활동(소대화·소현재)’의 본문 중에서”



<가을 물들어가는 오녀산성의 모습과 환룡호를 건너서 바라본 오녀산성의 위용>

따라서 앞으로 동굴과학의 학술적 역할을 바탕으로 관련된 여러 분야의 문화교류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동굴과학정보망 구축에 국가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새로운 국면이 형성되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특히 동북-중앙아시아지역의 동굴과학정보망 구축을 위한 노력에 큰 기대와 관심을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역동적 변화와 성장을 거듭 이룩하고 있는 중국은 지하공간의 관광자원화와 그 개발수의 극대화 추구를 위한 깊은 사고 속에서, 이를 위하여 앞서가는 한국동굴학회와의 공동협력 개발을 기대하고 있음은 한국동굴학회의 위상을 가일층 격상시키는 상호 협력관계 형성의 호기로 사료되며, 상호 기대와 희망이 함께

하는 고무적인 변화의 시점에서 한국동굴학회의 새로운 결속과 다짐을 요구하는 매우 바람직한 지표 위에서 동굴과학의 글로벌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새겨 붙이는 의미 깊은 활동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양국 간의 협력발전 노력에 찬사와 함께 협력을 다짐합니다.

#### 4. 동북아시아 동굴과학정보망 구축

자연유산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부분은 철저히 보존되어야 한다. 자연동굴은 관광자원이나 자연학습장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과 탐방객의 인식부족으로 대부분 오염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심각한 경우도 있다.

동굴환경보전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동굴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인근에 인공동굴이나 자연사박물관 등을 설립하여 간접적으로 동굴 탐사와 체험을 유도하는 것이다. 동굴 내에서도 절대 보전되어야 할 곳은 최대한 보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자연동굴은 대부분 장구한 세월을 거쳐 이루어진 자연의 유산이기 때문에 이들의 관찰을 통해 지구의 자연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사시대의 주거지로서 인류문화의 원류를 찾아 볼 수 있는 곳이므로, 오늘날 문화관광자원으로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다각도의 동굴 이용은 자칫 고유의 자연환경을 훼손시킬 수도 있으므로 기존의 관광동굴은 환경 친화적 방법을 모색하여 천혜의 희귀자원을 잘 보존해야 할 것이다.

자연동굴의 가치와 관리의 중요성은 한 지역이나 국가에 국한된 일이 아니며,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 그 존귀함과 희귀함에 대한 철저한 보

존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국제적 협력과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를 위한 국제학술교류협력이 필요함도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중요성과 필요성은 우선 동북-중앙아시아지역 동굴과학정보망 구축의 당위성을 부각시켜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동북-중앙아시아지역의 동굴과학정보망 구축을 위한 노력에 기대와 관심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 5. 결 론

동굴탐사를 마치고 탐사기행문을 작성하면서 동굴과 동굴학회의 중요하고 자랑스러움을 새삼 인식하였다. 그리고 탐사의 어려움과 진실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하였다. 중국 연변 지역은 넓은 땅이 있지만 그곳에 동굴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 동굴에 대한 관심을 돌려 새로운 동굴을 찾는 데 노력하고자 한다.

또한, 인공적인 유물이지만 오래 전 과거 우리 한민족의 사회문화의 일면에서나 찾아 볼 수 있었던 구시대의 서민층의 장례문화 중에서 전해오던 고려장굴 터의 현상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시대의 서민문화와 사회상을 다시 더듬어 보는 매우 유익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더구나 바위돌과 같은 큰 석재를 사용하여 견고하고 튼튼한 석실 벽과 천정을 구축했던 모습을 보고 왕릉과 같은 거대한 장묘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생활 문화에서도 장묘 석실의 축조 기술이 흔히 사용되어 왔으며, 비록 규모는 다를지라도 형태와 기법은 유사하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번에 한국동굴학회와의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중앙아시아

지역 동굴과학정보망 구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였고, 그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찬동하며 앞으로 국제협력교류 활동을 통하여 참여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동굴탐사와 기행 기록의 조그마한 협력 사업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중국에서 Chun-Zi Xu 씀>